



서튼 제역 할 해 주면
강한 중심타선 구축
마운드 젊어져 큰 힘
진우 기량회복 기대

광주체고 이특영 8강

코리아 국제양궁 여자 개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성현(24·전북도청)과 '광주체고' 이특영(18)이 제7회 코리아국제양궁대회 여자 개인전 8강에 올랐다.

박성현은 4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여자 개인 16강전에서 독일의 나오미 포르카르트를 107-96으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최은영(23·청원군청)과 '주부 궁사' 정창숙(34·대구서구청), '고교생 궁사' 이특영, 윤옥희(22·예천군청)도 각각 8강에 이름을 올렸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임동현(21·한국체대)이 8강에 진출했다.

한편 이 대회 경과문드부문에선 한국 양궁 궁사를 전원이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IA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 출사표

“투·타 안정…올핸 꼭 V10”

“올해는 기필코 우승하겠다.”

KIA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은 2007 프로 야구 개막을 이틀 앞둔 4일 “명가재간”을 목표로 ‘V10’의 꿈을 이루겠다”며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 감독은 “지난해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서 젊은 선수들이 성숙된 게 큰 힘이다”며 “그동안 일본 전지훈련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했고, 연습경기와 시범경기에서 마운드와 타선이 안정감을 보여 줘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서 감독은 특히 “윤석민, 한기주, 진민호, 정원 등 젊은 마운드의 기량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들이 지난해 보다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된다면 팀 전력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다만 1선발 후보였던 김진우가 제 기량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본으로 간 투수 그레이싱이 빙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 감독은 또 을 시즌 팀 성적의 키플레이 어로 용병 래리 서튼을 꼽았다.

서 감독은 “마운드는 그대로로 아침이다. 하지만 타격이 문제”라면서 “서튼이 중심타자로 제 역할만 해준다면 장성호 등 앞뒤 타자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 강한 중심 타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 감독은 또 다른 용병인 투수 에서튼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

■ KIA 선발 라인업



고 있다”며 “10승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며 아직도 테스트 중임을 내비쳤다.

한편 KIA는 이날을 시즌 각 포지션별 주전 엔트리를 발표했다.

선발투수는 윤석민-이대진-서튼-전병우가 4선발로 최종 확정됐고, ‘토종 에이스’ 김진우는 저조한 컨디션 때문에 2군으로 강등됐다.

중간계투는 진민호, 양현종, 정원, 신용운 등이, 미무리는 한기주가 맡게된다.

포수는 김상훈, 1루수 장성호, 2루수 김종국, 3루수 이현곤, 유격수 홍세완, 중견수 이

종범, 좌익수 서튼, 우익수 이용규 등으로 확정됐다.

또 조경환과 김연훈, 손지환, 김원섭 등은 상대 선발 투수에 따라 적절한 포지션에 배치할 계획이다. ‘거포 기대주’ 김주형은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타순은 1번 이용규, 2번 이종범, 3번 장성호, 4번 서튼, 5번 이재우, 6번 이현곤, 7번 홍세완, 8번 김상훈, 9번 김종국 순이다. 상대 선발 투수에 따라 타순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정은, 삼성생명 구했다

가려지게 됐다.

박정은의 한 방이 삼성생명을 구해냈다. 전반 한 때 14점까지 앞서던 삼성생명은 3쿼터 막판에 신한은행에 역전을 허용했다.

54-53으로 앞서던 4쿼터 초반 태스 맥윌리엄스, 진미경, 하은주에게 연속 6점을 내줘 54-59까지 뒤진 삼성생명은 로렌 잭슨의 자유투로 1점을 따라갔다.

하지만 다시 맥윌리엄스, 하은주에게 추가점을 내줘 경기 종료 6분 18초 전에는 55-63까지 뒤져 패색이 짙어 보였다.

극적인 장면은 경기 종료 15초 전에 나왔다. 66-68로 2점을 뒤진 삼성생명은 박정은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던진 3점슛이 극적으로 골망을 가르며 베랑 끝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구원승

김병현(28·콜로라도 로키스)이 4일(한국 시간)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디아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 2-2로 맞선 11회초 팀의 6번째 투수로 등판, 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 둘에 맞는 공을 1개씩 내줘 1실점했지만 11회말 폭발한 팀 타선 덕에 승리투수가 됐다.

콜로라도 타선은 11회말 3안타와 상대 실책 1개를 엮어 2득점하며 4-3으로 경기를 뒤집어 김병현은 폐전 위기에서 행운의 승리 투수가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6일 개막

<하> 시즌 전망과 신인들

을 시즌 프로야구가 4강(삼성, SK, 한화, KIA) 4중(두산, 롯데, 현대, LG)으로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프로야구에서 첫 선을 보이는 새내기와 외국인 선수, 그리고 국내로 돌아온 해외파들과 부상 털고 복귀하는 재기파, 군 복무를 마친 선수들의 활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대 강자·절대 약자 없다

KIA·삼성·한화·SK ‘4강’

▲해외 새 얼굴들

지난 해 미국 무대에서 뛰었던 봉중근(27-LG)과 최향남(36), 송승준(27-이상 롯데) 등 ‘투수 3총사’가 대표적이다.

재활을 거쳐 올해 시범경기에서 마무리 시합을 받았던 봉중근은 좌완임에도 145km/h 안팎의 빠른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 구사 능력, 두둑한 배짱을 갖춰 LG 미운드의 주축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풍운아’ 최향남과 송승준도 롯데 선발진의 한 축을 예약한 상태다.

봉중근 등 해외파 활약 기대

▲부상·부진 딛고 재기 다짐

지난 해 부상에 발목을 잡혔던 심정수(32)와 임창용(31·삼성), 정민태(37·현대), 이대진(33-KIA), 김동주(31·두산)는 올 시즌에 나서는 각오가 남다르다.

재활을 거쳐 지난 해 똑같이 1경기씩에 등판했던 정민태와 이대진도 시범경기에서 노련미를 앞세워 각각 2경기 방어율 2.00과 방어율 0.00의 깔끔한 피칭을 과시해 합격점을 받았다.

▲군 제대 선수들 활약 기대

군 복무를 끝내고 돌아온 이호준(31-SK)과 이영우(34-한화), 구자운(27), 이경필(33-이상 두산), 이상열(30), 마일영(26-이상 현대), 김상현(27-LG)의

등장도 반갑다.

▲울해의 신인왕을 노린다
울해 신인 중에서는 SK 와이번스의 좌투수 김광현과 KIA 타이거즈의 좌완 양현종이 눈에 띈다.

시범 7개임에 구원 등판, 8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13의 안정된 내용을 선보인 KIA의 좌투수 양현종은 팀의 좌완 부재 숙제를 해결해 줄 희망이다.

KIA 양현종 신인왕 도전

▲신·구 용병 및 대결 관심

케니 레이번과 마이크로 마노(이상 SK)의 활약이 기대된다. 레이번은 시범경기를 평균자책점 2.45로 마쳤고 로마노도 2.00의 방어율로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한화의 중장거리포 제이콥 크루즈와 좌투수 세드릭 바워스와 삼성 투수 크리스 월슨, KIA 투수 세스 에서튼도 저마다 활약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 무대 신고식을 앞둔 이들과 달리 니엘 리오스, 맷 랜들(이상 두산), 마이클 캘러웨이, 클리프 브롬바(이상 현대), 래리 서튼(KIA), 제이미 브라운(삼성), 팀 하리칼라(LG), 펠릭스 호세, 호세 카브레라(이상 롯데) 등은 이미 겸종을 마친 ‘효자 용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포조)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50-SBS스포츠)

5일(목)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준준결승 3차전 <KTF-KT&G>(18:50-Xports)

▲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14:00-KBSN Sports)

▲제4회 동아시아클럽 핸드볼(14:10-KBS1)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챔피언결정전 5차전<신한은행-삼성생명>(15:30-SBS스포츠)

6일(금)

▲마스터스 골프 1R(04:00-MBC, 05:00-MBC ESPN)

방수

살마을하는 고어텍스 방수제

여기까지 방수로 고민하셨나요?
누구나 살마을하고 싶은 판타지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프로농구 팀 찜 4차전

용인 삼성생명과 대전 KIA 타이거즈가 4차전에서 맞붙습니다.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7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8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9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10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11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12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13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14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15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16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17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18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19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0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1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2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3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4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5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6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7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8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29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0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1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2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3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4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5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6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7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8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39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0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1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2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3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4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5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6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7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8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49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0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1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2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3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4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5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6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7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8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59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0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1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2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3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4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5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6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7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8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
국제전 69차전

한국 청년 국가대표팀과 함께하는